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과 국립암센터가 지난 15일 사람과 동물의 비교종양학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국대학교

건국대 동물병원-국립암센터 '반려동물 종양 연구' 협력

보건의료, 수의학 분야 시너지 기대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과 국립암센터는 사람과 동물의 비교종양학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교의학 측면에서 최적의 모델인 반려동물의 종양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와 수의학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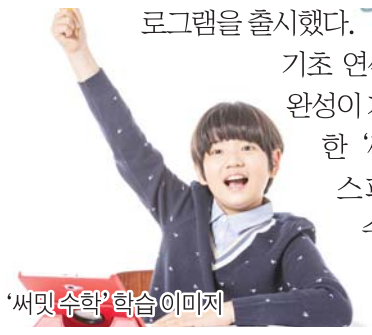
지난 15일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상호 협력 협약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비교의학 기반의 연구정보 공유, 항암신약 개발의 전임상모델 개발, 약물 반응 기전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헌영 건국대 동물병원장은 "반려동물의 종양은 공통된 환경 요인을 공유하며 자연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의 종양 비교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두 기관의 공동 관심으로 사람과 동물 종양의 이해와 지식 교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대교, '노리' 인수 1년만에 흑자전환

대교는 에듀테크 서비스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 8월 인수한 글로벌 인공지능 수학교육 플랫폼 회사 '노리(KnowRe)'가 인수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교는 노리 인수 후 지난 10월 AI 학습서비스 '써밋 수학'을 '써밋 스피드수학'과 '써밋 스코어수학'으로 새롭게 선보이며 차별화된 AI 학습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써밋 수학' 학습 이미지

기초 연산력 완성이 가능한 '써밋 스피드 수학'과 수학 고득점을 위한 '써밋 스코어수학'은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설계를 가능하게 하며 개인별 맞춤 학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결과 '써밋 스코어수학'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 회원 13만을 돌파했고 '써밋 스피드수학'은 출시 3주만에 3만을 돌파, 누적 회원 4만을 보유하며 대교의 AI학습서비스 회원수는 총 17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5% 이상 증가했고 매출은 4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93% 증가했다. 이와 함께 2019년 노리의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75억원과 2억원으로 전년 동기(매출액 36억원, 영업이익 -41억원) 대비 흑자를 기록하게 됐고, 한 노리는 처음 흑자로 돌아서게 됐다. /한용수 기자

에듀테크 기술 한곳에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AI, ICT 결합한 교육기술 집중 조명

미래 교육산업의 트렌드와 최신 교육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17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EDUCATION KOREA 2020)'가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제17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16~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교육산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 종합 박람회로 18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교육이 미래다(The Future is Education)'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 기술의 융합인 '에듀테크(EdTech)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대한민국 대표 교육 플랫폼으로 교육산업 관계자 및 교사, 교직원, 학부모가 미래 교육의 트렌드와 교육혁신을 위한 관련 기술과 제품들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장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세계 최고의 교육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국제 교육 컨퍼런스 '제3회 국제 교육 콘퍼런스(EDUCON 2020)'가 16, 17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전시장 내 아레나홀에서 동시 개최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교육의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을 집중 조명한다.

에듀테크 덴마크협회 회장 'Mikkel Frich'(미켈 프리히), 구글 'Colin Marson(콜린 마슨)', 마이크로소프트 'Aidan McCarthy(에이단 메카시)' 등 교육계 글로벌 리더들이 참가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법 등 미래 교육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고려대 개교후 첫 교육부 종합감사

대규모 사립대 16곳 중 3번째 타깃 범위, 2016년 3월 이후 운영 전반 2018년 회계감사서 부당사례 적발

고려대학교가 2018년 회계감사, 2019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특정감사에 이어 올해 종합감사까지 3년 연속 교육부 감사를 받는다. 고려대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는 건 개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교육부 사학감사관실에 따르면, 고려대는 전날(15일) 학교법인 고려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종합감사 계획을 통보 받았다. 종합감사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로,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사단과 대국민 공모 등으로 선발된 시민감사단 총 20여명이 투입된다.

이번 고려대 종합감사는 지난해 교육부가 개교 이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00여개 사립대학 중 학생 수 6000명 이상 대형 대학 16곳을 종합감사하겠다고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대형 사립대 종합감사는 지난해 연세대(2019년7월17일~30일)와 홍익대(2019년10월17일~30일)에 이어 고려대가 3번째다.

종합감사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연세대의 경우 학생 규모가 가장 커 첫 타깃이 됐고, 홍익대의 경우 적립금 규모가 가장 많아 두 번째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의 경우는 2018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교직원들이 유흥비나 퇴직자 선물 구입 등에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추가적인 종합감사 필요성이 학내외에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고려대 회계감사에서는 교직원들이 전임 비서실장 정년퇴임 선물로 543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구매하고, 고려대 의료원이 교원 27명 퇴직 기념품으로 1명당 순금 30돈씩 지급하면서 1억5000여만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고려대 종합감사 범위는 2016년 3월 이후 법인 운영, 대학 운영 전반이다.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법인·수익사업체 재무·회계관리, 고려대 입시, 학사, 장학금, 출석·성적, 교직원 임용·승진 등 인사관리, 예산·회계 관리, 부속병원, 연구비, 계약, 기자재 관리, 국가재정 지원 사업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2018년 회계감사와 2019년 학종 특정감사 부분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감사 기간에 학교법인 고려 중앙학원이나 고려대에 관한 비위를 제보받는다.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나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나머지 대형 사립대 13곳에 대한 종합감사는 올해와 내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해외기업 입김에 국내社 좌지우지

문형철 기자의 국방 칼럼

최근들어 국군 장병들을 위한 새로운 군수품 보급사업이 활발하다.

이러한 군 당국의 노력은, 군수품 관련 국내 기업의 내수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익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런 장밋빛 미래를 예단할 수 없는게 최근의 현실이다. 일부 해외 기업의 입김으로 국내 기업과 관련산업이 좌지우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군 당국은 사이즈 문제로 시끄러웠던 패딩을 해외파병용으로 보급하려고 있다. 해외파병 부대용 패딩은 일반 장병에게 지급되는 '패딩형 동계점퍼'와 조금 다른 '경량 패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렸다.

지난해까지는 소프트쉘이라는 전투상황 등을 고려한 제품이 보급됐는데, 올해는 패딩으로 바뀐 것이다. 경량 패딩이 우리 군이 파병되는 지역에 적합한지도 의문이지만, 이 보급품의 구매요구도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발수·투습 기능으로 유명한 외국 기업의 소재 사용을 명문화 했다. 군용으로 뛰어난 신뢰성을 가진 소재임에는 분명한데, 해당 업체의 한국 지사가 소재의 공급을 쥐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해외파병부대의 경량패딩 사업이 공정하지 못한 답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복수의 국내 원단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외국 업체는 국내에 생산시설을 두지도 않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을 종속적으로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까다로운 생산공정 감시 등이 신뢰성으로 이어지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국내업체를 옥죄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해외기업은 국내 대기업과 연계를 하면서, 국내 대기업마저도 자신들의 유통기지화 하려한다는 우려가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돌고 있다. 국산화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해외기업에 잠식되어 가는 셈이다.

지난 7년 간 국군의 방상외피(야전상의) 소재는 일본계 소재기업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했다.

새로 커지는 군수품 시장의 성장동력이 순수 국내기업이 아닌 외국계 기업에게 가로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와 군 당국은 진정한 국산화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 /captinm@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FB홀딩스와 기술이전 계약

'프레쉬 컷 가공 컵 과일' 상품 개발

숙명여자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이 신선식품 가공업체인 FB 홀딩스(Fresh & Better Holdings, 대표 권준)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FB 홀딩스는 글로벌 과일 유통 협동조합 브랜드 선키스트(Sunkist)의 '가공 컵과일' 부문의 아시아 지역 독점 제조, 유통 라이선시(Licensee)로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현숙 교수 연구실과 '프레쉬 컷(fresh cut) 가공 컵 과일' 상품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FB 홀딩스의 베트남 지사인 FB 인터내셔널(Fresh & Better International INC) 과 체결했으며 3개월 동안 마켓 리서치와 1차 시제품 레시피 개발, 최종 공장 양산형 제품에 대하여 영양정보 분석 노하우를 제공하게 된다. 계약규모는 4만 7000 달러다. /한용수 기자

설원식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장(왼쪽)과 권준 FB홀딩스 대표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